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 도 자 료 |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|
|---|---|---|

**2019년 11월 6일(수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5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19. 11. 4. (월) | 담당부서 | 투자유치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김규성 과장(044-203-4080) | 담 당 자 | 문성용 사무관(044-203-4089) |

#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글로벌기업과의 투자협력 모색!

**- IKW(Invest Korea Week) 계기 「주요 투자가 라운드테이블」 개최 -**
**- 반도체, 디스플레이, 화학소재 등 주요 투자가와 투자협력방안 논의 -**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는 **2019년 외국인투자주간**(Invest Korea Week 2019)에 참가한 투자가를 대상으로 11.5.(화) 14:00~15:30 그랜드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**박태성 무역투자실장** 주재로 **'주요 투자가 라운드테이블'**을 개최함

○ 금번 행사는 정부의 **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**으로 개최된 것으로, 반도체, 디스플레이, 화학소재, 전자부품 등 **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12개사***가 참석함

* EUV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기업(TOK),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기업(램리서치, TEL), 유럽 최대 화학소재 기업(바스프), 35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약·화학기업(머크) 등

○ 산업부는 참석한 기업들과 함께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**핵심 소재·부품·장비의 공급 안정성 확보**를 위한 **對韓 투자계획** 및 **국내기업과의 투자협력방안**을 논의함

**【주요 참석 기업】**

| 구분 | 기업명 (업종) |
|---|---|
| 유럽 | 바스프(반도체·디스플레이소재, 독일), 머크(기능성 플라스틱, 독일), 모간어드밴스드머티리얼즈(탄소제품·단열재, 영국), 뷔르트일렉트릭(전자부품, 독일), 지멘스(스마트공장 솔루션, 독일), 르노(자동차, 프랑스) |
| 미국 | 램리서치(반도체 장비), 캐봇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(웨이퍼 연마제) |
| 일본 | TOK(반도체·디스플레이소재), TEL(반도체 장비), 이비덴(흑연·탄소제품) |
| 중국 | 야웨이머신(CNC 공작기계) |



□ 동 행사를 주재한 **박태성 무역투자실장**은 "한국 정부는 **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를 지원**하기 위해 **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** 및 **협력 생태계 구축 등을 집중 지원**하고 있다"고 설명하며,

○ "한국은 반도체, 자동차, 조선 등 **탄탄한 주력산업 기반**을 갖추고 있어 **해외 첨단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과 투자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"**임을 강조하고,

○ **참석한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對韓 투자**를 당부함

□ 참석기업들은 **한국 정부의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육성 의지에 많은 관심**을 보였으며, 외국기업들에게도 **반도체·디스플레이 소재, 첨단 화학소재, 자동차 부품**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**한국 투자를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**이라는 기대를 표명함

○ 이와 함께, **외국인투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**해줄 것과, 한국의 **노동시장, 환경규제** 등에 대한 **지속적인 개선 필요성**을 강조함

○ 또한, 일부 기업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밝히고, **합작·지분투자, 공동 R&D** 등 협업이 가능한 **한국기업에 대한 정보**를 요청하는 등 **한국기업과의 투자협력**에도 많은 관심을 보임

○ 이에 대해, 박 실장은 **한국 투자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명**하고, 앞으로도 **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**임을 설명함

□ 향후, 산업부는 **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투자유치**를 위해 ①**현금지원 확대**(최대 한도 30%→40%), ②기업별 **1:1 전담관 지정**을 통한 밀착 지원, ③**합작·지분투자를 위한 국내기업과의 매칭**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문성용 사무관(☎ 044-203-40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